

도내 IB 후보학교, 1년 만에 21곳으로

초등 IB PYP 7 · 중등 IB MYP 10 · 고교 과정 IB DP 4곳
IB 교사 자격증인 IBEC · 공식 워크숍 등 적극 지원 성과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
남원 용북중학교가 전북 최초로 IB 후보
학교로 승인된 이후 1년 만에 도내 IB 후
보학교가 총 21개로 늘었다고 밝혔다.
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과정
IB PYP 7개교, 중학교 과정 IB MYP 10

개교, 고등학교 과정 IB DP 4개교 등
이다.
시군별로는 전주 4개교, 익산 5개교,
남원 3개교, 군산 · 김제 · 고창 각 2개
교, 원주 · 순창 · 부안 각 1개교로, 도
내 대부분 지역에서 IB 프로그램 운영

에 관심을 보였다.
이는 지난 1년간 전북교육청이 IB 프
로그램 도입 · 확산과 교육 현장 안착
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
결과다.
특히 IB 후보학교와 관심학교 교원을
대상으로 IBEC(IB Educator Certificate)
교원 자격증 과정과 국제 바칼로레아
본부(IBO)가 주관하는 공식 워크숍 및
정기 연수 참여를 적극 지원했다.
여기에 IB 프로그램 수업 설계를 위

한 전문가 특강과, 최근에는 IB 고등
교육(대학 입시) 연계 포럼을 통해 국
내 대학 입학 관계자들과의 연계 방안
도 모색하고 있다.
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“지난 1년간
IB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됐고, 이를
통해 전북 공교육의 미래 역량을 강화
할 수 있길 기대한다”며 “IB 후보학교
들이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때까지
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
하겠다”고 말했다. /장은성 기자

오늘 전북 과학교육 정책수립 토론회 개최

미래 과학교육 비전 공유
정책 안내 · 질답 등 진행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전주
왕의지빌에서 ‘2025년 전북 과학교육
정책수립 토론회’를 개최한다고 밝혔
다.
이날 토론회는 전북 과학 · 융합교육
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, 변
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미래 과학교
육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.
토론회는 특강을 시작으로 전북 과
학교육 정책 안내, 질의응답, 분임토의
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특히 현장 교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
렴해 실질적인 과학교육 정책에 반영
하고, 학생들의 과학 학력 신장을 위
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
다.
먼저, 송희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책임연구원이 ‘기후변화와 재생에너
지, 그리고 미래의 과학교육’ 특강을
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과학
교육의 역할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,
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의 변
화 방향을 전달한다.
이어 ‘전북 과학 · 융합교육 중장기
계획(2025~2029)’의 주요 내용과 추
진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.
이와 함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
분임을 이뤄 전북 과학 · 융합교육 중
장기 계획 프로그램을 검토하고, 현장
중심의 정책 제언과 개선 방안을 논의
한 후 토의 결과를 전체 참가자와 공
유하는 시간도 갖는다.
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“이번
토론회는 현장 교사와 전문가가 함께
전북 과학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소
중한 자리”라며 “앞으로도 창의 · 융합
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
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
다”고 말했다. /장은성 기자



지난 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회의실에서 전북권 3개 대학(전북대 · 군산대 · 원광대)과 하얼빈 정보공정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소통 회의가 열렸다. <사진=전북대학교 제공>

한 · 중 SW협력 물꼬... 하얼빈 정보공정대와 협력 논의

전북대 · 군산대 · 원광대 등 전북권 3개 대학, 국제교류 협력 강화

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(학
부장 홍득조)와 SW중심대학사업단(사
업단장 김성찬)이 중국 하얼빈 정보공
정대학과의 국제 교류 협력 기반 마련
에 나섰다.
2일 전북대에 따르면 컴퓨터인공지
능학부와 SW중심대학사업단이 공동
주관해 지난 1일 진수당 회의실에서
전북권 3개 대학(전북대 · 군산대 · 원
광대)과 하얼빈 정보공정대학 관계자
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교류 확대를
위한 소통 회의를 가졌다.
이 자리에는 고로 하얼빈 정보공정

대학 부총장 겸 소프트웨어학원 원장
을 비롯해 선진회 소프트웨어학원 부
원장, 장해동 정보센터장, 장승 국제
교류센터장, 조준비 연구개발센터장,
강시양 소프트웨어학원 원장 보좌
및 연구원 등 중국 대학 관계자 6명
이 참석했다. 이번 방문은 국내 대학
들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
련됐다.
이날 회의에서는 홍득조 교수(컴퓨
터인공지능학부장)가 학과 교육과정
과 주요 연구 인프라를 소개하고, 대
학 내에 구축된 학습관리시스템

(LMS), 그리고 SW중심대학사업단에
서 구축한 AI서버실과 XR실습실, 교육
혁신본부에서 구축한 AI스페이스 공간
을 함께 둘러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
을 논의했다.
특히 이번 교류에는 국제문화예술산
업진흥원의 이정훈 이사과 (주)케이테
크 양재동 대표 등 관련 산업계 관계
자들도 참석해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
도 함께 모색했다.
김성찬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
은 “이번 교류는 전북권 대학들이 공
동으로 국제 협력 기반을 넓히는 중요
한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/장은성 기자

전북교육청,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 관리자 연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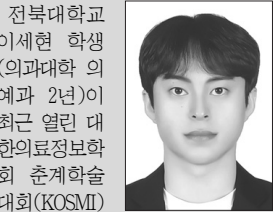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과 4일,
14일 3일간 6차례에 걸쳐 전주교육대
학교 황화당에서 2025년 학생맞춤통
합지원 구축 관리자 연수를 운영한다고
밝혔다.
교장 및 교감, 행정실장, 교육지원청
국(과)장 등 2,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
행하는 이번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

원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안내
하기 위함이다.
학생맞춤통합지원원은 내년 3월부터
시행되는 ‘학생맞춤통합지원법’에 따
라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
기초학력 미달, 경제 · 심리 · 정서적
어려움, 학교폭력, 경계선 지능, 아동
학대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

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뤄진다.
연수는 △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
해 △선도학교 운영 사례 공유 등 통
합 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
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
다.
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 개발을
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 지정 선
도학교에 전북에는 25개 학교와 7개 교
육지원청이 참여하고 있다. /장은성 기자

신생아 발달지연 조기 진단 연구 ‘우수’

전북대 이세현 학생, 대한의료정보학회 연구 성과 발표
정량 뇌영상 · 임상데이터 활용 발달지연 예측 가능성 제시



전북대학교 이세현 학생 (의과대학 의
예과 2년)이 최근 열린 대
한의료정보학
회 춘계학술
대회(KOSMI)
자유연제 부
문에서 ‘우수연제논문상’을 수상
했다고 전했다.
이 대회는 의료 인공지능, 임상
데이터 분석, 디지털 헬스케어 등
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
규모의 행사로, 전국의 연구자들이
최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.
이에 따르면 이세현 학생은 신생
아기의 정량 뇌 영상(T2-weighted
MRI 및 확산텐서영상, DTI)과 임
상 데이터를 결합한 다중모달 분
석 기법을 활용해 발달지연을 조
기에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
시했다.
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
현호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된 이
연구는 출생 체중이 작아 신경발
달 위험이 높은 SGA(재태연령 대
비 저체중) 신생아를 대상으로 뇌
구조 특성과 임상 변수 간의 상관

네트워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새
로운 임상적 접근으로 평가받고
있다.
특히, 복잡하게 얽힌 신생아기의
생물학적 지표들을 그래픽 네트워
크 기반 통계 기법인 Graphical
Network Analysis(GNA)를 통해 통
합 분석함으로써, 기존 회귀나 단
순 비교 분석으로는 확인하기 어
려운 조건부 연결성과 잠재적 위
험 인자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화
하고 해석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
다. 이 연구는 SGA 신생아의 뇌
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물
학적 지표들을 발견하고, 이를 조
기 예측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
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
했다. 향후, 이 연구는 조기 위험
선별과 맞춤형 개입 전략 개발에
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이세현 학생은 “어린이병원을 앞
을 지날 때마다 발달장애로 어려움
을 겪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의 모
습을 떠올리며 도움이 되는 연구
를 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”며
“이번 연구가 환자와 보호자들에
게는 희망이, 의료진에게는 임상
적 편의와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”
고 밝혔다. /장은성 기자

전주대, ‘달란트전형’ 첫 도입

2026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부터... 총 250명 학생 선발

전주대학교(총장 박진배)는 2026학
년도 신입학 수시모집부터 학생부교과
전형 중 ‘달란트전형’을 신설, 총 250
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.
2일 전주대에 따르면 ‘달란트’는 개
인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을 비유적으
로 표현한 단어다. 이번에 신설된 ‘달
란트전형’은 개인마다 각자 다르게 나
타나는 달란트를 발견한 후 잘 활용해
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에도
기여를 할 수 있는 취지로 신설된 전
형이다.
달란트전형은 교육과정 개편 및 진
로선택과목 수강 확대에 따라 학생이
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선택한 과목의
성적을 보통 교과 성적보다 더 큰 비
중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. 보통 교
과(성적 상위 3개 교과군) 성적과 진
로선택과목 원점수 성적을 각각 40%
와 60%로 반영해 성적을 산출하며, 국
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가 지원할

수 있다.
또한, 단과대학 통합선발이 이뤄지는
2개의 단과대학(인문콘텐츠대학, 경영
대학)과 2개의 학부(자유전공학부, 사
범대지율전공학부)에서 총 250명의 학
생을 선발한다.
이근호 입학처장은 “달란트 전형 신
설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의 정
합을 추구하고자 한다”며 “앞으로도 학
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로와 성장 가
능성을 깊이 살펴 입학전형에서 수험생
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
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전했다.
한편, 전주대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
에서 총 2,451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
정으로,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
록 지원가능횟수를 확대했다. /장은성 기자

구독 · 광고문의 063-288-9700

전북의 역사 · 문화 유산

옛 전북의 구심점

전라감영

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
로, ‘완영’이라고도 불렸다.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
명 ‘완산’에서 나온 말이다.
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· 북도와 제주
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,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
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
에 자리했다.
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
이 들어섰고,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
었다.
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
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.



선화당

전라감영의 재창조

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, 2009년 전
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,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.
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
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.
복원 범위는 전체복원, 부분복원,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,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
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.
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
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
원했다. <글=전주시 제공>



관공각



내아